

**테러 이슈****ICCT<sup>1)</sup>, PKK 해체선언과 평화 정착 가능성 평가**

ICCT는 PKK 해체선언의 전략적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이행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

**□ 주요내용**

- (PKK) '78년 「압둘라 오잘란」이 창설한 쿠르드계 무장 조직으로, 독립 쿠르드 국가 수립을 목표로 터키 정부를 상대로 장기간 무장 반란과 테러 활동을 전개해 국제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지정
- (<sup>'25년 5월, 조직 해체 발표</sup>해체선언 배경) 장기화된 무장 투쟁의 군사적·정치적 한계와 국제적 고립 속에 기존의 독립 국가 건설 노선을 재검토하고, 민주적 자치와 제도권 정치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이 현실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도달

**【튀르키예 정부와 인접국 평가】**

- ✓ 튀르키예 : 자국 대테러 정책의 성과이자 국가 안보의 승리로 평가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한편, 쿠르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이나 민주적 양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고 제한적인 입장 유지
- ✓ 인접국(이라크·이란·시리아) : 국경 지역 무장 활동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, 쿠르드 정치 세력 재편 및 잔존 무장 조직의 이동·분화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도 동시 야기

- (결론) PKK 해체선언은 테러 종식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님  
- 정치적 출구와 제도적 수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조직의 분화나 再 급진화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안보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 존재

**□ 시사점**

- PKK 해체는 극단주의 완화의 기회이자 새로운 불안정성을 내포한 분기점으로,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1) ICCT(International Centre for Counter-Terrorism) : 대테러 전문 싱크탱크로 201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었으며, UN·NATO 등 국제기구와 협력

## 지역별 테러 동향

### 아·태

- **韓, 청와대 종합점검…“최고 수준 경호·경비 체계 구축”**
  - 12.28 언론은 경호처가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경호·경비체계 구축을 위해 국정원·경찰·軍·소방 등 13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건물 및 시설, 경내 산악지역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보도
    - ※ △안전△보안△화생방△위생△소방△위험물 탐지 점검과, 軍·경 경호지원 부대와 각종 기습침투 등 우발상황 대비 합동 현장종합훈련, 전문 기관과의 시설물 안전진단 등 예방 중심·선제적 경호체계 완성에 집중했다 부언
  
- **호주 총기테러 유족,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 촉구**
  - 12.29 언론은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기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호주 內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방 왕립 조사위원회 즉각 설치를 촉구하였다고 보도
    - ※ 호주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반유대주의가 급증(연평균 약 340건, 전쟁 이전에 비해 약 6배 증가)

### 미 주

- **美 대통령, 이란·하마스에 무장해제 압박**
  - 12.30 언론은 美 「도널드 트럼프」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, 이란과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압박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
    - ※ 「도널드 트럼프」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가 약속대로 무장해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국 군대가 투입될 수도 있다고 부언

○ 美 CIA, 베네수엘라 항만시설에 드론 공습

- 12.30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美 CIA가 이달 초 베네수엘라의 항만시설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으며, 해당 부두가 마약 저장과 운송에 쓰이는 곳으로 판단하여 공격했다고 보도

※ 언론에 따르면 해당 공격은 부두 시설과 선박만을 파괴했으며,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언

**유럽**

○ 이탈리아, 119억원 모금해 하마스에 전달한 일당 체포

- 12.28 언론은 이탈리아에서 자선 단체 3곳을 통해 모금한 700만유로 (약 119억1천만원)를 하마스가 관여하는 가자지구·팔레스타인·이스라엘 기반 조직들에 전달한 혐의를 갖는 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
※ 검찰은 해당 불법 자금이 은행 송금이나 해외 조직을 통해 하마스 관련 단체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부언

○ 튀르키예, 대테러작전간 IS 총격에 다수 경찰관 부상

- 12.29 언론은 튀르키예 경찰이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와 새해 연휴 기간 중 테러를 계획한 IS 조직원 의심 용의자 115명을 체포하고 추가 용의자 소탕 작전간 총격을 받아 경찰관 7명이 다쳤다고 보도

※ 튀르키예는 '17년 IS가 주도한 이스탄불 총기난사 테러로 39명이 숨진 뒤 연말연휴 시즌에는 광범위한 대테러작전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부언

## 역사 속 테러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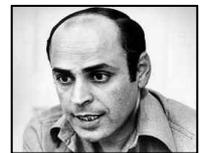
###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공항 연쇄 총격·폭탄 테러

- '85.12.27, 09:15경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 이스라엘 항공사 수속카운터를 향해 무장 괴한 4명이 무차별 총격과 함께 수류탄을 투척(16명 사망·99명 부상)
  - ※ 경찰은 테러범 3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1명은 검거
- 같은 날 09:30경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베차트 공항에서도 괴한 3명이 이스라엘 항공사 탑승 대기 중인 승객들을 향해 수류탄 투척 및 총격(2명 사망·39명 부상)
  - ※ 경찰은 도주하는 테러범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검거
- 이와 관련, 스페인 某 방송국은 '테러 발생 직후 한 남성이 전화로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'아부 니달 조직'(ANO)의 소행임을 주장하였다'고 보도
- 다빈치 공항에서 검거된 테러범은 이탈리아 법정으로부터 징역 30년 형을 구형받고 복역하다 지난 '10.6월 조기 석방되어 로마에 거주 중이며, 오스트리아 법원은 비엔나 공항 테러범 2명에게 종신형 선고

## 테러 상식

### < 아부 니달 조직(Abu Nidal Organization) >

- (결성) '74년 「아부니달」(Abu Nidal, 실명 : 사부리 알-반나) 이 「야세르 아라파트」가 이끄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(PLO)의 온건노선에 반발하면서 별도 결성한 조직으로, 이후 하마스, 이슬람 지하드와 더불어 팔레스타인 3대 과격단체로 급부상



〈아부 니달〉

- (주요활동) 아부니달은 중동,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지에서 90여 차례의 테러공격을 자행해 900여 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했으나, '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테러 행위를 사실상 중지('02.8월 아부니달 사망)
  - ※ 한때, 서방권에서는 同인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지도자로 지목
- (주요테러) ('85.12월) 로마와 빈 공항 테러공격(사망 18명)  
('86.9월) 이스탄불 유대교회당 총기 난사 사건(사망 22명)  
('91.1월) 튀니스에서 PLO사령관 암살 ('94년) 요르단 고위 외교관 암살